

시론

웬비어 사망과 북한인권

지난 6월 북한인권과 관련한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터져 나왔다. 북한으로 관광여행을 갔다가 당국에 체포된 후 1년 7개월 만에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열세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웬비어 사건은 미국은 물론 우리와 국제사회를 비난에 잠기게 했다.

순수한 관광객을 호텔에 설치된 정치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하고, 고문을 가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체제 북한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북한 인권 실태가 열악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71차 유엔총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면서 지적조항에 지도층(leadership)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증명한다.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는 지금 당장 개선이 시급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제사회는 제대로 된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HCHR)가 비로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 선교사와 탈북자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외교부가 우리 국민과 미국인의 조속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다지만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 한편 여러 차원의 대북 창구를 통해 국민의 송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통일 이후 세습독재 체제 아래서 생존권까지 위협받으며 살아남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책임을 조금이나마 다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제67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가

인도네시아지부, 교민 사회 역사교훈 되새겨

배연자 인도네시아지부 회장과 회원들은 6월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제67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가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이명호 총영사를 비롯해 김주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장, 백우정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 등 내빈과 교민, 연맹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연자 회장은 "우리 역사에



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즈음에 이렇게 온 교민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민 모두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되새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앙임원 간담회 개최

김경재 총재 등 16명

연맹은 6월 28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김경재 총재를 비롯해 정광영 부총재(사무총장직대), 우정석 이사 등 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연맹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인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연맹은 올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다"며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선봉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14회 전국 고교생 토론회

- **논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한다
- **운영방식** 아카데미식 토너먼트
- **일자/장소** 2017. 8. 9/자유센터 대강당(서울 장충동)
- **참가대상** 전국 시·도 지부 예선대회 입상자 16개팀(예정)

* 시상계획(본선)

- **대상** 국회의장상(상금 100만원, 1팀)
- **금상** 행정자치부장관상(상금 70만원, 1팀)
- **은상** 법제처장상, 헌정회장상(상금 50만원, 2팀)
- **동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상금 30만원, 4팀)
- **장려상** 연맹 총재상(상금 20만원, 8팀)
- **베스트스피커상**(연맹 총재상, 1명)
- **자유지도교사상**(연맹 총재상, 1명)

연락처 : 자유통일연구원(070-7122-8071)

주최 KFF 한국자유총연맹 후원 행정자치부

7-8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7. 16~8. 14)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안보현장 견학(서초구)	7. 22	평택제2함대	80명
	자유수호 웅변대회 예선(중랑구)	7. 28	구민회관 소강당	90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시지부)	8. 11	세종문화회관 앞	150명
부산	지체장애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연제구)	7. 24	성우원	120명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 탐방(부산진구)	7. 25	관내	30명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동래구)	7. 22	안민초교	10명
대구	폭염 생수나눔 봉사(북구)	7. 24	합지공원	100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달성군)	8. 14	옥포면	100명
인천	대학생 지식봉사단 활동(시지부)	7. 22	동암초교	40명
광주	국수나누기 봉사(남구)	7. 22	구립장난감도서관	15명
대전	환경정화캠페인(대덕구)	7. 23	목상동 일대	10명
울산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울주군)	7. 27	상북중학교	300명
세종	전국 고교생 토론회 예선(시지부)	7. 26	조치원여중	5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경로위안 행사(의왕시)	7. 28	아름채 노인회관	20명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예선(도지부)	8. 2	자유회관	100명
강원	이·미용 봉사(고성군)	7. 21	벤엘요양원	8명
	무료급식 봉사(속초시)	7. 28	나눔의 집	10명
충북	국토대청결운동(진천군)	7. 24	백곡천 둔치	30명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음성군)	7. 27	금왕초교 등	25명
충남	동네행복지킴이 활동(계룡시)	7. 26	지역 다문화가정	4명
	하늘빛 봉사단 환경정화 캠페인(아산시)	7. 29	온양초교	15명
전북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완주군)	7. 20	상관중학교	37명
전남	반찬전달 봉사(강진군)	7. 20	군동면	2명
경북	농촌일손돕기(안동시)	7. 26	풍천면	40명
경남	노인정 청소 봉사(창원시)	7. 27	대원동 노인정	10명
제주	자유수호 결의대회(제주시)	8. 13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	150명